

변호사들 생존 위한 변신

공·私기업체·시민단체 등 진출 송무 벗어나 새 영역 활로 개척

변호사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변호사들이 기존 송무(訟務) 업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역으로 활로를 개척하고 있다.

기업의 법무팀 임원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공기업 등 정부기관에 취직하는 것은 기본이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환경·시민단체에 전속되는 변호사도 늘고 있다.

◇기업·공기업 진출 활발=광주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올해 법무법인 '법가(法家)'의 박승일 변호사가 'KO-RAIL'(한국철도공사) 법무팀으로, 장윤순 변호사가 방위사업청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신영훈 변호사를 맞아 들었다. 앞서 유인상·김광영 변호사도 D건설 법무실장으로, 고창은 변호사가 K은행 법무팀장으로 영입됐다. 이외 상당수 변호사들도 정부기관 취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이나 공기업에 터를 잡은 변호사들은 법적 분쟁이 생긴 뒤에 이를 처리하는 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연봉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법조계에서는 연봉 7천만~1억원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변호사들이 기업체와 공기업 등에 앞다퉈 진출하고 있는 것은 변호사 수 증가에 따른 사건수입 감소로 인해 수입이 높고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 떠나려는 심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올 2월 말 현재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는 총 216명으로, 2000년 165명에 비해 30%(51명)가 늘었다. 변호사가 늘어난 만큼 사건 수입이 줄면서 일부 변호사 사무실들은 경영난을 겪고 있다. 광주지역에서 단독 사무실(직원 4명 기준)을 운영할 경우 직원 봉급을 포함한 유지비는 월 평균 1천만원 정도. 현재 건당 330만원인 변호사 선임료(민·형사 포함)를 감안할 때 월 평균 5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해야만 간신히 사무실을 유지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월 평균 5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는 변호사회 회원 216명 중 절반도 안될 것이라는 게 지역 법조계의 설명이다.

한편, 전남대와 조선대 등 지역 일부 대학이 로스쿨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지난 2005년부터 문형섭·이철환 변호사 등 8명의 변호사가 대학교수

로 자리를 옮겼다.

◇각종 위원회 진출도 치열=공공기관이 위촉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진출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소속 회원 215명 중 36%인 76명이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이 가운데 올해만 34명의 변호사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으로 위촉됐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위촉을 받으면 이를 공직, 희망차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하지만 높은 경쟁률 때문에 집행부가 심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가장 인기있는 자리는 광주시와 전남도, 일선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하는 위원회와 기관의 고문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이는 위원회와 고문변호사 활동을 통해 짝퉁한 부수입(?)도 올릴 수 있는 데다, 각계 각층의 인물 등을 만나 사건 수입도 늘리고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의 경우 광주시 동구 선관위 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 10여 개에 이르는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이 대부분 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일부 변호사들은 '소액·개인파산·회생사건 전담 변호인단'과 '노인법률지원회'에 들어가 다양한 공익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4월23일부터 시작한 개인회생·파산의 경우 지원 변호사단은 376건을 처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충장로 축제 '플래카드 물결' 27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 내걸린 '2007 광주 충장로 축제' 홍보 플래카드. 다음달 9일부터 6일 동안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재즈댄스·경복 안동 하회탈춤 등 각종 공연과 풍성한 행사들이 마련된다. /위정각기자 jwi@kwangju.co.kr

불법파업 참가 손실 입힌 기아차 노조 지부장 징역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태병 부장판사는 27일 불법 파업에 참가해 회사 측에 손실을 입힌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前) 기아차 노조 광주지부장 김모(43)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시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과 불법파업에 참여해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과 무관한 '노동법 개악저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중단' 등을 주장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시에 받고 지난해 11월 15일과 22일 오후 1시30분부터 6시간씩 동료 근로자 3천400여명과 함께 파업에 참여해 총 983대의 차량(158억여원 상당)을 생산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음주운전 사고 경찰 입건

목포경찰은 27일 음주운전을 하다 3중 추돌 사고를 낸 목포경찰서 장산파출소 소속 김모(50) 경사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지난 26일 자정께 목포시 산정동 백련로 사거리에서 자신의 누비라 승용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1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화물차가 앞으로 밀려 엘란트라 승용차와 부딪쳐 3중 추돌을 일으켰지만, 부상자는 없었다.

사고 당시 김 경사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14% 상태였다.

/목포=이상희기자 lsh@kwangju.co.kr

도난차량 타고 절도 중학생 등 4명 검거

나주경찰은 27일 도난차량을 타고 다니며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나주 Y중 H(15)군 등 10대 4명을 특가법 상 절도 혐의로 불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H군 등은 지난 7일 선배들이 훔친 라비타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나주시 이창동 길에 세워진 오토바이에서 기름을 빼내 사용하는 등 13회에 걸쳐 15만8천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M(15)군은 지난 4월 나주시 삼영동의 H오락실 내에서 J(14)군을 협박, 현금 3만원을 갈취하는 등 7회에 걸쳐 중학생 20명에게 26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나원참 (7317) 김종두



다들 물어봐... KCC

DS건설(주) KCC건설, 연세대에 대학원

KCC향토 시스텔향토 생산·시공

(주)본드나리 KCC향토, 연세대에 대학원

실리콘·방수제·점착제·타이브

10대들 화장실서 돈 가방 '술쩍'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할머니의 돈 가방을 가로챈 10대들이 경찰서행.

○27일 광주 동부경찰에 따르면 김모(16·광주시 북구 각화동)양 등 10대 3명은 지난 25일 오전 9시께 광주시 동구 대인동 K병원 화장실에서 현금 13만원이 든 환자 진모(여·87)씨의 손가방을 빼앗아 달아나다가 인근에서 추석 연휴 교통 안내를 하던 광주지방경찰청 기동중대 소속 양모(22) 상경 등에게 붙잡혔다.

○김양 등은 진씨가 다리를 다쳐 몸이 불편하고, 목발 때문에 화장실 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불임을 보자 바닥에 놓여있던 손가방을 낚아챈다고.

○김양은 "불임을 보러 갔다가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겨 잘못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웹하드에 무심코 자료 올렸다가...

웹하드(문서나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파일 관리 서비스) 사이트에 무심코 소프트웨어나 동영상 강의 등의 디지털 콘텐츠 자료를 올렸다가는 고소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엔디스크'(www.endisk.com) 웹하드 사이트를 자주 이용하는 노모(여·26·광주시 광산구 월곡동)씨는 지난 11일 A법률사무소로부터 "불법복제 등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겠다. 연락바란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노씨가 A법률사무소에 전화를 걸어보니 PC에서 가상으로 CD드라이브를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인 '시디 스페이스'라는 자료를 웹하드에 올린 것이 저작권법 위반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
법률사로부터 피소
네티즌 피해 잇따라

라는 것이었다. 법률사무소 여지원은 "이미 고소했으니, 합의금을 쥐여 취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노씨는 그때야 얼마 전 컴퓨터 고장수리를 할 때 A/S 기사가 자료를 백업하면서 저장공간이 부족하자 '엔디스크'라는 웹하드 사이트에 잠시 업로드한 자료 중에 '시디 스페이스'라는 프로그램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네이버 '파일공유' 등 저작권 단

속관련 네티즌 대책 토론'(cafe.naver.com/userjosa) 카페에는 노씨처럼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해 상담을 원하는 네티즌들이 올린 게시물이 7월부터 9월 현재까지 100여건이 넘었다.

저작권자료부터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이 단속활동을 벌이며 불법 사용자를 적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60만원을 내고 합의를 본 고등학생 김모(18·대구시)군은 "법이 악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A법률사무소 관계자는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민기자 emlee@kwangju.co.kr

보성 20대女 실종 사건 70대 용의자 검거·조사

20대 여성 2명의 피살 및 실종 사건을 수사 중인 보성경찰은 27일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A씨(70·여업)를 불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1시께 보성군 회천면 읍교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조모(여·24·경기도 시흥시)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배가 조씨의 실종 추정 시간에 출항한 사실과 숨진 조씨와 함께 실종된 친구 안모(여·23·인천시 남동구)씨의 신용카드가 A씨의 배에서 발견됨에 따라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그러나 "조씨 등이 먼저 배를 태워달라고 했고, 한 명이 실족해 바다에 빠지자 다른 여성이 구하려다 실종됐다"며 살인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씨의 목에 가는 줄 등으로 굽힌 상처가 있는 점 등으로 미뤄 피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숨진 조씨는 친구 안씨와 함께 추석 연휴를 맞아 관광차 보성에 들렀으며 '김밥돼지'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행중 알계원 보성 주민에게 보내기도 했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kwangju.co.kr

까다로운 토끼씨가 선택한
세기보청기
난청해결전문가세기보청기
미세한 소리도 들리게 하는 첨단 디지털 기술로 모든 난청을 치료합니다.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egistar.co.kr

무통수술, 기침이 없습니다. 무통수술, 기침이 없습니다.

상담전화 1588-8499 080-222-0100